

음녀 바빌론은 멸망한다

성경말씀: 계18:1-8

목요일에 교황 방문, 금요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 5만 명, 성모 승천일 기념 미사, 토요일 124명 시복식(광화문 100만 명), 이 나라의 영적 기상도를 보여 준다. 사29장 9-14절

유튜브 <평화의 사도 교황 프란치스코의 전쟁 선전포고>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답변: 스페인 언론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 않지만 폭력이다.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

근본주의란 무엇인가: 1. 성경의 축자 영감, 2.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과 신성(하나님 되심), 3.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4. 그리스도의 부활, 5. 그리스도의 재림

2년 전 BBC 포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흑인 목사의 재림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 설명, 모두가 조롱함, 갑자기 교황이 되기 전의 프란치스코가 튀어나옴, 표독스러운 모습

“재림은 근본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으로 계시록의 시적인 표현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바울은 왕국이 곧 임할 것으로 말했다. 천 년, 2천년 뒤가 아니다.” “바울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리라고 잘못 믿었다.”

사회자: “신약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쩐다는 겁니까? 신약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이제 성경 비평학과 현대 성경 이해에 따라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 접근법은 안 됩니다.”

그는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평화를 깨는 사람

성 프란치스코(프란치스코), 평화의 기도, 백건우가 시복미사 전 리스트의 곡 '새들에게 설교하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연주함.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천주교 구원관: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김수환 추기경, 도올의 논어 이야기 58장 중 2001년 4월 27일) 갈2:15-16, 21
교황과 천주교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규정하며 적대시 한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지금 평화의 사도인체 가장하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 막12:38-40, 눅6:26

그래서 깨어서 이런 것을 구분하고 알리고 이야기해야 한다.

성경을 통해 확신하는 것: 교황과 천주교, 종교 통합 세력, 성경 변개자들, 적그리스도, 사탄과 거짓 대언자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 아무리 세력을 확장해도 그들의 끝은 불 호수이다(계20:10, 15).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이 창궐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음녀 바빌론은 멸망한다>, 창세부터 내려오는 마귀의 바빌론 음녀 체제의 실상과 운명

성경의 구조

왜 선과 악이 존재하는가? 왜 교황의 세력과 종교 통합 세력, 이슬람, 유대인들 핍박

성경을 통해 인류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재림과 휴거는 사탄 때문에 발생함.

과거의 영원의 어느 시점에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함. 이사야서 14장 루시퍼, 에스겔서 28장 ‘덮는 그룹’ 루시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면서 타락하여 사탄(Satan)이 됨.

하나님은 곧바로 루시퍼를 엄벌해서 파멸시키실 수도 있었다. 이 경우 셋째 하늘에서 유사한 반란이 계속해서 생길 수도 있다. 하나님은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 그런 반역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시간과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현재까지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오고 있다. 지난 6,000년 동안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신의 특별 계획의 산물인 사람과 이 땅을 망쳐 놓을 수 있으면 망쳐 놓으라고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은 먼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을 타락시킨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때에는 사람을 완전히 망쳐놓기 위해 자신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하고 이로써 유전자 변형을 통한 잡종 거인들을 생산해 낸다. 홍수 이후에도 니므롯이라는 반역자를 통해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꾸미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일은 중단된다(창11). 창12장에서 왕국 프로그램을 위해 아브라함과 유대인 선명 그 이후에 메시아 계보를 멸절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며 유대 왕조에서는 아달라라는 부정한 여인을 시켜 다윗 왕가의 모든 씨를 멸절시키게 한다(왕하11). 그러나 하나님은 요아스를 보존하셔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신다. 이러면서 결국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그는 해롯을 통해 그분을 죽이려 하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광야에서 직접 그분을 시험한다(마4). 가룟 유다에게 직접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이기신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후의 교회시대에 사탄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중세 1,000년 이상은 카톨릭 교회라는 비성경적 단체를 조직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극도로 핍박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종교통합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귀의 이러한 계획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가 바로 7년 환난기이다. 7년 환난기가 끝나면서 사탄은 결박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며 천년왕국의 끝에 하나님은 마귀에게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모아 대적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마귀와 함께하던 대적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 삼켜지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대언자는 불 호수 속으로 던져진다. 그리고 지금 있는 땅과 하늘에서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시간이 생기 이후로 지난 6,000년 동안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과 루시퍼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유심히 내려다보고 있다. 그리고는 결국 가장 강한 창조물인 루시퍼라도 창조자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신약시대의 교회를 사용해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신다(엡3:10). 결론: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큰 갈등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1,000년이 하루와 같다. 인류 역사의 약 6,000년은 그분 앞에서는 불과 6일 단지 6일밖에 되지 않는 바로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갈등과 악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미래의 영원이 시작되면서 셋째 하늘에서는 영원무궁토록 다시는 루시퍼의 반역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광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한 번 오시고 또다시 오셔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창세기와 계시록

	창세기	계시록
1. 낙원	잃어버림	회복함
2. 생명나무	접근 금지(3:22-24)	먹음(22:2)
3. 인간의 반역	시작(3-4장)	종결
4. 살인 등의 죄악	시작	종결(21:27)
5. 죽음	시작(4:8)	종결(21:4)
6. 저주	시작(3:15-18)	종결(22:3)
7. 마귀	인간의 유혹자(3:1-18)	최후를 맞음(20:10)
8. 하나님의 말씀	변개(3:1-5)	변개의 저주(22:19)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백성의 갈등

노아의 홍수 후에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섬김, 바빌론 종교/문화/정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들: 바빌론 세력, 세미라미스와 니므롯(어미와 아기) 숭배

구약: 이집트,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 두로와 시돈의 바알 신 족속들, 에돔(바알과 아스다롯, 담무스)

신약: 교회의 탄생,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초대 교회 성도들의 부흥

마귀의 혼합 작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로마 제국의 이교도들에게도 기독교 문화를 강요함. 이교도들의 바빌론 문화의 '어미와 아기'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둔갑함. 예수님은 젖만 빠는 아이로 아무것도 못하고 마리아가 모든 것을 다 함. '하늘의 왕비', '하나님의 어머니', 드디어 승천함. 승천일 지정: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

주후 600년이 지나면서 천주교회는 세력을 확장하며 세상의 정권을 탐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약 1,000년, 암흑시대, "왕국은 없다. 재림은 없다. 무천년주의, 교황이 대리자다."

인간의 자유 말살, 양심을 짓누름, 중세 로마 교황들의 축재와 축첩으로 인해 원성이 하늘을 찌름,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죽임을 당함.

2차세계대전 역시 천주교의 사주를 받은 히틀러의 작품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사건,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려는 시도

거의 몰락했던 천주교를 다시 살려낸 것이 바로 로올라가 세운 예수회이다(반종교혁명, 트렌트 공회).

외경 인정, 교황의 수위권 인정, 교육으로 다시 세상에 파고들면서 결국 20세기 후반에 다시 세상을 장악함.

1960년대의 제2 바티칸 공회 종교 통합,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면서 흥왕한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았으나 성경대로 보면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를 돕는 바빌론 세력의 수장/핵심이다. 적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재림 전에 그의 세력은 최고조에 이른다. 계17-18장은 하나님의 왕국 회복 계획에 따라 마귀의 바빌론 음녀 세력이 몰락되는 것을 보여 준다.

계시록 17, 18장의 음녀

17:1-5, 물들 위에 앉음, 6절: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7-9절: 음녀의 신비, 일곱 산에 앉아 있음
15절: 물들은 이 세상 사람들, 16절: 음녀의 멸망, 적그리스도와 그의 정치 세력이 종교 세력을 결국 죽이고 뱉. 18절: 음녀는 저 큰 도시 곧 로마이다. 종교 개혁자들은 다 이렇게 보았다.

18장 2절: 바빌론의 멸망 다시 확인(21절), 3절: 그녀가 행한 일 다시 보여 줌, 4-5절: 음녀 바빌론에서 나와야 한다. "종교 통합, 마리아 구원자, 행위 구원, 성경 변개, 6-8절: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결론

성경대로 진행된다. 재림이 임박할수록 바빌론 음녀 세력 부흥, 교황과 천주교의 부흥, 그러나 음녀 바빌론은 결국 멸망할 운명이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계18:4). 알려져 구원해야 한다.

국가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